

반도체가 키우는 도시...전남광주 경제지도 다시 그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896조원 투자 가시화 협력기업 입주·청년 인재 유입 '선순환 기대' 산업 넘어 인구·경제·도시 경쟁력까지 변화

전남광주 산업대전환 (2) 도시 구조 재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총 89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벨시가 맞이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에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반도체 설계(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집적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조업 중심이었던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고용과 소비, 인구, 도시개발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하나의 공장만 들어서는 산업이 아니다.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협력기업, 물류, 데이터센터, 교육·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이는 대표적인 집적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전문인력이 유입되는 구조를 가졌다. 이로 인해 소비와 상권이 커지고,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삼성전자 본사가 자리한 경기 수원과 평택,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밀집한 경기 판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지역경제와 도시 구조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에는 광주특벨시 역시 이번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이 현실화될 경우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산업 경쟁력과 인구 구조, 도시의 체질까지 바꾸는 전환

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협력기업까지 연쇄이동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집적 효과'다. 생산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장비 유지·보수, 시험·인증, 물류, 공정 자동화 기업 등이 함께 모여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 한 곳의 투자는 협력기업들의 추가 투자와 이전으로 이어지는 '앵커 효과(Anchor Effect)'를 가져온다.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연구개발 기능까지 집적되면서 지역 산업구조도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충북 청주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장비기업이 꾸준히 입주하면서 충북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이 있는 경기 수원시 역시 전자·반도체 협력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하며 경기 남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벨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소부장 기업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유출 막는 전환점 기대

대기업 유치는 인구 구조 변화로도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과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인력 비중이 높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장기 근무 비율도 높은 만큼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이주가 이어지면서 주택과 교육, 의료,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신도시다. 판교테크노벨리에는 IT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구체화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벨시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전경,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직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게임,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전국의 청년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후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학교, 문화시설이 함께 확충되며 단순한 업무지구를 넘어 수도권 대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했다.

충북 청주시 역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됐고,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이처럼 지역 경제계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청년 유출 완화와 외부 전문인력 유입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

첨단기업의 경제효과는 공장 울타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면 소비가 음식점과 카페, 병원, 학원, 숙박업,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된다. 건설과 물류, 시설관리,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진다.

실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주변 영통구와 판교역 일대 상권은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늘어나면서 외식과 문화생활, 교육 등에 대한 소비가 확대됐고,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간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 활동과 근로자가 늘어나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와 공원, 문화시설, 복지 인프라 등에 재투자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지역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의 효과는 생산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서비스업과 지역민, 건설업 등 도시 전

체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도시 공간의 변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도시 개발 방향도 변화한다. 국내 주요 반도체 산업도시들은 산업단지 조성고 함께 배후 주거단지 조성했다.

경기 수원시는 삼성전자와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성장했고, 충북 청주시 역시 산업단지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도시 기능이 확대됐다. 산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한 것이다.

광주특벨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되면 산업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고 도시 경쟁력을 함께 키워야 기업과 인재가 장기간 머물 수 있

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유치는 단순히 생산시설 하나가 들어서는 산업이 아니라 도시의 산업구조와 인구, 생활환경까지 함께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청주와 수원, 판교 사례를 보면 대기업이 들어서는 이후 협력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면서 주거와 상권, 교육 인프라까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벨시도 이번 반도체·AI 특화단지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외부 인재까지 유입되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결국 기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산업단지 조성고 함께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을 함께 갖춰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켄텍 내 글로벌 DC 연구단지 조성 '직류산업' 본격 육성

(직류)

한전, LS일렉트릭 등 협약 RE100 시장 등 선점 기대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급성장하는 직류(DC)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 글로벌 DC 기술 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지역이 차세대 전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전은 2일 LS일렉트릭 천안사업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K-DC Alliance(K-DCA) 회원사, 해외 DC Alliance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DC 산업 확산 2026'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C 실증을 넘어 산업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축적한 직류 기술 개발과 실증 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국내 시장 창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산업도 기존 교류(AC) 중심에서 직류(DC)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일 LS일렉트릭 천안사업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K-DC Alliance(K-DCA) 회원사, 해외 DC Alliance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DC 산업 확산 2026'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DC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다.

한전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과 중·저압 직류(MVDC-LVDC)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DC 기술 적용 범위를 배전망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공장 등 대규모 수요처를 중심으로 대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

이다.

또 신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표준·인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하고 시험과 실증, 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이날 한전은 켄텍, LS일렉트릭,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G전자와 켄텍 내 '글로벌 DC 기술 특화 연구단지 조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직류 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DC 산업 경쟁력 확보에 협력

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DC 기술은 연구와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K-DCA를 중심으로 사업과 기술, 제도가 함께 발전하는 DC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RE100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중심으로 DC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진흥원, 남도 스토리 웹소설 IP 지원

현직 작가 멘토링·플랫폼 연재 등 맞춤형 피드백

전남광주의 이야기를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키우기 위한 전문 창작 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기반 스토리 창작자의 실전 창작 역량을 높이고 웹소설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남도 스토리웹소설 웹소설 아카데미'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창작자들이 실제 웹소설 플랫폼 연재를 목표로 작품을 고도화하고 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5주간 온라인 라이브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현지 인기 웹소설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플랫폼 연재 노하우를 전수하고 과제와 작품 피드백을 통해 교육생들의 창작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플랫폼 연재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구성 심화 및 초반 전개 전략, 화차별 플롯 구성, 로맨스 판타지 장르 구조 이해, 플랫폼별 연재 특성 분석, 작품 완결 및 집필 전략 등으로, 교육생 개별 작품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도 함께 제공해 완성도를 높인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다.

기초과정 수강생 연계 선발 5명과 별도 공개모집 5명으로 나눠 선발하며, 모집 대상은 전남광주주민을 비롯해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휴학생·졸업생, 또는 주민등록상 전남광주 거주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신청과 기성 작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기초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지원자도 별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심화과정 수료생에게는 강사진과의 멘토링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창작자의 작품은 웹소설 플랫폼 연재와 콘텐츠 IP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